

'익산형 농업인력풀' 본격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5개소 확대 운영... 年 30000명 인력풀 가동

익산시가 일손 걱정이 없는 농촌을 위해 인력수급체계를 다각화한 '익산형 농촌인력풀'을 본격 운영한다.



우선 농촌 일자리 관련 구인·구직센터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운영해 적재적소 일자리 매칭에 주력한다. 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은 물론 도시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취업

을 농촌근로에 투입해왔다. 올해 중개 실적 총211명을 목표로 지역내 인력풀을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수급 비상으로 영농철 농촌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익산형 농촌인력풀을 구축하고 농가 경영안정화에 나섰다.

익산농촌인력중개센터에는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익산시청, 금마농협, 낭산농협, 여산농협과 함께 올해는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이 새롭게 합류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3월부터 본격 추진하게 된다. 기존 인력풀 1,700명과 올해 800명을 추가 모집해 2,500명의 인력풀 구축해 단기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시만의 특성을 살려 시내지역에 거주하는 유휴인력을 모집해 지난해 연인원 2만3,775명

또한 수도권 도시형 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취업 대기자와 도시 비경제활동 유휴 인구가 대거 인력풀에 흡수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지역 숙박시설에 체류하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숙박비, 작업수당 등을 지원해 농업일자리 취업 및 농촌 정착 기회를 마련한다.

한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 계절근로자 MOU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에 베트남 애아습군과 직접 방문하여 농업 현장과 무단이탈 방지 방안을 논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베트남 애아습군과 2월 중 MOU 체결이 완료되면 분철 농번기에 5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가 수요에 따라 MOU 및 결혼이민자 4촌이내 가족 초청을 통해 상반기 120명, 하반기 100명 인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시적 인력투입이 필요한 시설원예, 발작물 농가의 경우 최대 5개월 근로가 가능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유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외 유휴인력 및 외국 인력 교류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익산시의 농촌인력체계 지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농가 경영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소룡동이 최근 산업단지 기업유치 확대에 발맞춰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주민 상생프로젝트를 시작해 이목이 집중된다.

'소룡1C 기업 동행 캠페인'

군산시, 기업·주민 상생프로젝트 출범식

군산시 소룡동이 최근 산업단지 기업유치 확대에 발맞춰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주민 상생프로젝트를 시작해 이목이 집중된다.

소룡동에 따르면 지난 7일 김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및 지역주민 대표단과 함께 소룡동 연두순시 행사를 치르면서 기업·주민 상생형프로젝트 소룡1C 출범식 및 업무협약 체결을 맺었다.

소룡 1C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중심지인 소룡동과 관내 기업과의 정기기타 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수익을 주민 체감형 사업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기업활동과 근로자 이주 정착을 지원하는 기업·주민상생 프로젝트다.

이날 행사에는 소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길훈)와 OCI 주식회사 군산공장(공장장 정승용)간 첫 업무협약을 맺고 OCI 정기 기타 기부와 함께 관내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사업

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동은 이번 OCI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금년 총 3개 기업에서 1억 3천 만원을 기탁받아 주민체감형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각계각층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룡1C 기업 동행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업 유치를 이주해오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 정착 1C 맞춤형 지원 상담센터' 운영 준비에도 나선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민의 오랜연원이던 현대중공업 재기동과 산업단지에 유망기업들이 입주하는 가운데 소룡동에서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새롭게 마련하게 된 점이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신학기 학교급식 직접 운영 나선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강한 지역농산물 70억 규모 공급... 농가소득 향상 기대

익산시가 올해 신학기부터 학교급식을 직접 운영한다.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수요공급체계를 위해 공공기반으로 설립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3월부터 직접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 130여개와 유치원, 초·중·고 84개교에 다니는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까지 약 3만650여명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익산원협에서 위탁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 푸드재단을 통해 익산시 전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및 로컬가공품을 공급하며 소규모 농촌학교에서도 식재료 전품목을 납품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하여 먹거리 거점시설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를 이달 중 합영을 제4산업단지 내 준공한다

농산물 집하·소분·포장 등 HACCP 시설인증에 적합한 전처리시설을 비롯해 저온저장고와 안전성분 식실 등 시범가동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한다.

신학기 급식공급 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생산 농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 200여가가를 조직화해 연중공급이 가능하도록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수발주 및 온라인 주문시스템 구축, 물류배송, 안전성관리, 식재료 공급협력업체 모집 등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했다.

특히 농산물 수급이 연간 70억 규모의 학교급식에는 소량 다품목 납품이 가능해져 지역 참여 농가 확대와 관로 안정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직접 전환으로 15개 읍·면단위 소규모의 급식체계가 안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지리적 또는 규모가 작아 식재료 수급이 불안하여 권역으로 묶어 식재료를 공동구매해 운영했으나, 이마저도 잦은 유탄 및 학생수 감소 등으로 식재료 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됐다.

시는 기존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올해부터 소규모 농촌학교(공동구매 학교)에 푸드재단을 통한 식재료 전 품목을 공급함으로써, 농촌학교 먹거리 불평등 해소에 앞장섰다.

기존 식재료 공급체계인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행정, 학교, 농업인·협력업체간 상생시스템을 만들어, 지역간에 최적화된 공공형 학교급식 모델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단계적 확대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해 모두가 원할수 있는 공공형 학교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8일 김미정 부시장 주재로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보고사업은 △새민중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산단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도시비밀길숲 조성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핵심 사업들이 포함됐다.

또한 부진 예상 사업에 대한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중단 없는 사업 추진과 계획적 예산 집행으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을 위한 본격적 태세에 돌입했다.

이에 시는 계속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마무리에 집중하고, 신규사업은 사전 절차적 적기 이행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미정 부시장은 "올 상반기 경기불안, 고용상황 등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책임감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보건소장 성낙영 최종합격자 공고



군산시는 8일 개방형직위로 선발 공모한 군산시 보건소장 최종합격자를 성낙영(現군산

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을 시자로 결정하고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소장 선발은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 및 지역보건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개방형직위(지방기술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로 지정해 공모했으며,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면 보건지소 등에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군산시는 8일 시민들이 편리하게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야 보건지소와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 분소를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를 나문동으로 확장 이전한 후에도 보건소에 분소를 유지해 치매검진과 치매치료를 지원 접수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원거리이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분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대야, 임피, 서수, 개정면 등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야 보건지소 내에 분소를 마련하고 1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 5일 낮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중앙동에 있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도 분소를 설치 화·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에 운영한다.

치매안심센터 분소에서는 치매검진,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치매치료를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